돌아온 '탱크' 최경주

PGA 파머스 오픈 1타차 준우승…1년 7개월만에 '톱 10'

'코리안 탱크' 최경주(46·SK텔레콤)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오픈(총상금 650만 달러) 준우승을 차지했다.

최경주는 2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토리파인스 골프장 남코스(파72·7천569야드)에서 열린 대회 5일째 4라운드 경기에서 8개 홀을 치르는 동안 보기만 1개를 기록했다.

전날 10개 홀을 마치고 악천후로 경기가 중단됐다가 이날 나머지 경기를 마친 최경주는 4라운드에서 버디 1개와 보기 5개로 4타를 잃었다.

최종합계 5언더파 283타를 기록한 최경주는 이미 전날 6언더파 282타로 4라운드 경기를 모두 끝낸 브랜트 스네데커(미국)에게 1타 뒤진 2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2011년 5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이후 4년8개월 만에 투어 통산 9승째를 노린 최경주는 아쉬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준우승 상금은 70만2천 달러(약 8억4천만원)다.

최경주가 PGA 투어 대회에서 10위권 내에 진입한 것은 2014년 6월 트래블러스 챔피언십 공동 2위 이후 약 1년7개월 만이다. 최경주는 2년 전인 2014년에도 이 대회에서 준우승했다.

이날 경기는 원래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에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밤사이 몰아친 강풍 탓에 쓰러진 나무를 정리하는 등 코스 정비에 시간이 더 걸려 오전 10시에 재개됐다.

코스 안전상의 이유로 갤러리 입장이 금지돼 버디가 나와도 박수 소리가 나오지 않는 적막이 흘렀다.

전날 경기가 중단된 시점에서 지미 워커(미국)에게 1타 뒤진 공동 2위였던 최경주는 14번 홀(파4)에서 나온 보기가 뼈아팠다. 이때까지 워커, 스네데커와 함께 6언더파로 공동 선두였던 최경주는 티샷이 오른쪽으로 밀렸고 두 번째 샷도 러프로 향하는 등 고전 끝에 한 타를 잃었다.

약 2m 남짓 되는 파 퍼트가 왼쪽으로 살짝 비켜가며 최경주는 스네데커에게 1타 뒤진 2위로 다시 내려섰다.

워커 역시 14번 홀에서 한 타를 잃은데다 15, 17번 홀 연속 보기로 우승 경쟁에서 탈락한 가운데 최경주는 마지막 18번 홀(파5)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다. 이 홀에서 한 타를 줄인다면 스네데커와 연장 승부를 벌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최경주는 이번 대회 1,3라운드에서 18번 홀 버디를 잡기도 했다.

그러나 최경주는 세 번째 샷으로 공을 그린 위에 올리기는 했으나 홀과 거리가 8m 가까이 벌어졌고 결국 파로 마무리하면서 스네데커의 우승이 확정됐다.

이미 전날 경기를 끝낸 스네데커는 혹시 모를 연장 승부에 대비해 몸을 풀다가 최경주의 버디 퍼트가 빗나가는 순간 가족들과 우승의 기쁨을 나눴다.

그는 2012년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패권을 탈환했다.

지난해 2월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로암 이후 약 1년 만에 승수를 보탠 스네데커는 투어 통산 8승을 기록했다. 우승 상금은 117만 달러(약 14억원)다.

2012년 이 대회 3라운드까지 선두에 7타 뒤지다가 마지막 날 역전 우승을 일궈낸 스네데커는 올해도 3라운드까지 선두와 6타 차이가 났으나 이를 뒤집고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연합뉴스

마스터스·올림픽 출전 기대감

최경주 세계랭킹 껑충

'코리안 탱크' 최경주(46·SK텔레콤)가 다시 힘차게 엔진을 가동했다. 지난해 부진을 털어내고 2016년 부활의 시작을 알렸다.

최경주는 2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토리파인스 골프장에서 끝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오픈에서 최종합계 5언더파 283타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우승자 브랜트 스네데커(미국)과는 1타 차다.

비록 2011년 5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이후 4년 8개월 만의 통산 9승째를 올리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최경주는 극심한 부진에 빠져 있었다. 19개 대회에 출전했으나 10위 내에 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25위 안에 이름을 올린 적도 두 번뿐이다.

이번 파머스 인슈어런스오픈은 어려운 대회였다. 날씨가 안 좋았다.

내내 강풍이 불다가 마지막 4라운드에는 최대 시속 60㎞ 강풍에 비, 낙뢰예보까지 가세해 경기가 중단됐다.

최경주는 마지막 8개홀을 남기고 공동 2위를 달리는 상황에서 경기가 중단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해 선두 탈환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2~3라운드 이틀간 공동선두를 달리는 모습은 여지없이 강풍을 뚫고 달려나가는 탱크였다.

올해 최경주는 부활 의지가 충만하다.

최경주는"올해 목표는 우승 한 번 이상"이라며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 작년에는 아들의 대학 입시와 프레지던츠컵 부단장 활동으로 투어에 전념하지 못했다는 것이 부진의 이유였다.

그러나 올해는 반드시 다시 일어서야 한다. 2011년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으로 확보한 5년간의 투어 출전권이 올 시즌 만료되는 것도 큰 이유다.

이번 준우승으로 최경주는 희망의 발판을 다져놨다.

이날 획득한 70만2천 달러(약 8억4천만원)의 준우승 상금으로 그는 상금 랭킹을 176위에서 19위로 끌어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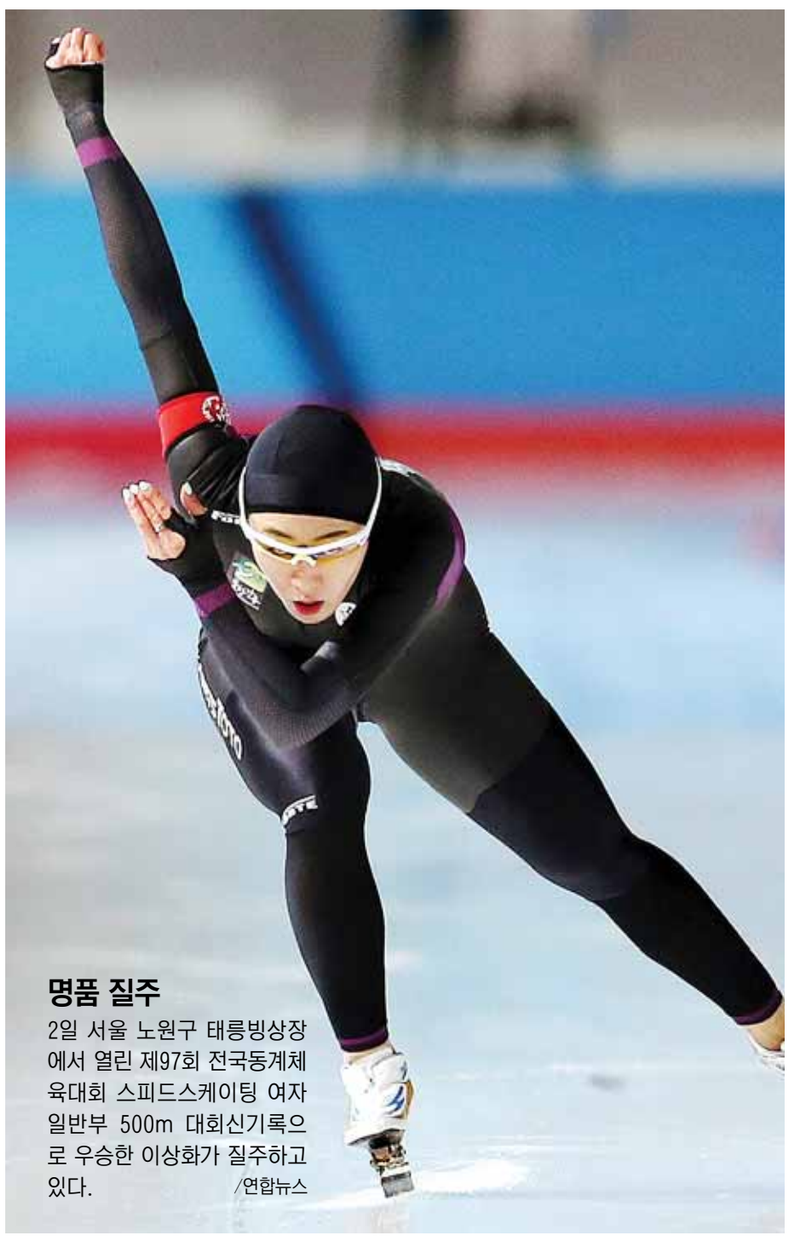
페덱스컵 랭킹도 153위에서 22위로 상승, 지난해 참가하지 못한 '가을잔치'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도 높여놨다.

세계랭킹도 334위에서 137위로 뛰었다. 최경주는 리우올림픽 남자 국가대표팀의 코치로 선임됐지만, 일단 올림픽 출전권 확보 기대감도 키웠다.

상승세를 이어가 초봄 전까지 우승을 거두면, 지난해 출전하지 못했던 첫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 무대를 다시 밟을 수 있다. 그는 지난해 13회 연속 마스터스 출전을 이루지 못해 아쉬움을 삼킨 바 있다.

마흔 후반에 들어선 최경주가 올해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맞아 PGA 투어를 달굴지 기대가 커졌다.

한편 세계골프랭킹 1위를 꺾고 정상에 오른 송영한(25·신한금융그룹)도 2일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1.38점을 얻어 지난주 204위에서 113위로 뛰어올랐다. /연합뉴스



명품 질주
2일 서울 노원구 태릉빙상장에서 열린 제9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일반부 500m 대회신기록으로 우승한 이상화가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인지 LPGA 멤버로 데뷔

내일 코츠 챔피언십 개막…리디아 고·최나연 등 총출동

지난 시즌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에서 돌풍을 일으킨 전인지(22·하이트진로)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정식 멤버로서 데뷔전을 치른다.

전인지가 출전하는 대회는 3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오칼라의 골든 오칼라 골프장(파72·6천541야드)에서 열리는 시즌 두 번째 대회 코츠 챔피언십이다.

전인지는 지난해 여자골프 최고 권위의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을 제패했을 뿐 아니라 뿐만 아니라 일본투어 메이저대회에서도 2승을 따냈다.

이처럼 세계 골프팬의 이목을 끈 전인지는 당연히 올해 LPGA 투어 신인왕 후보다.

지난 시즌 후반 각종 부상에 시달렸던 전인지는 플로리다로 전지훈련을 떠나 이번 대회를 준비해 왔다.

전인지는 한국시간 4일 오전 2시 35분 리젯 살라스(미국), 린시위(중국)와 경기를 시작한다.

이번 대회에는 개막전에 출전하지 않았던 세계랭킹 1위 리디아 고(19)도 출전한다.

리디아 고는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타이틀 방어전 일정을 조율하느라 개막전에 나오지 않았다.

작년 이 대회에서 공동 2위에 오른 리디아 고는 생애 처음으로 최연소 나이에 세계랭킹 1위에 오르는 영광을 차지하기도 했다.

랭킹 2위 박인비(28·KB금융그룹)가 허리 부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리디아 고가 올해에도 무서운 질주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개막전에 출전하지 않았던 선수 중에 하나는 디펜딩 챔피언 최나연(29·SK텔레콤)이다.

최나연은 지난해 이 대회에서 2년 넘게 이어져 오던 우승 가뭄을 해소했다. 시즌 개막전인 바하마 클래식에서 우승한 김효주(21·롯데)도 2주 연속 우승을 노린다.

이 밖에 김세영(23·미래에셋), 유소연(26·하나금융그룹) 등도 상위 랭커들이 출전해 한국 선수끼리 벌이는 올림픽 티켓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강정호 덕분에…

MLB 닷컴 "박병호 미네소타행, 최고계약 10위"

미네소타 트윈스의 박병호(30) 영입이 이번 오프 시즌 최고의 계약 중 10위에 선정됐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인 MLB닷컴은 2일(한국시간) 이번 오프 시즌에 일어난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의 계약 중에서 최고의 계약을 꼽으면서 박병호의 미네소타행을 10위에 올려놨다.

MLB닷컴은 한국에서 2년 연속 50홈런 이상을 기록한 박병호가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의 전 팀 동료였다는 점, 강정호가 한국에서 뛸 때에 비해 OPS(출루율+장타율) 하락 폭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미네소타는 박병호에게 2천535만 달러(포스팅 비용 1천285만 달러, 바이아웃 50만 달러 포함 4년 계약)를 투자했다"며 "박병호가 미네소타의 지명타자로 연착륙에 성공한다면 미네소타에는 엄청난 자신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MLB닷컴은 이 계약이 좀 더 높은 순위에 올랐을 수도 있었다며 박병호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최고의 계약 1위에는 좌완 투수 데이비드 프라이스의 보스턴 레드삭스행이 선정됐고, 2위에는 시카고 컵스로 자리를 옮긴 제이슨 헤이워드가 차지했다.

3위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를 선택한 잭 그레인키, 4위는 애리조나의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댄스비 스완슨 영입, 5위는 뉴욕 메츠에 잔류한 요에니스 세스페데스가 이름을 올렸다.

한편 미네소타 구단은 박병호의 존재를 미네소타 지역 내 한인사회에 널리 알리는데 여념이 없다.

미네소타 구단은 구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박병호가 지역 내 다국적 기업 3M에서 한국인 최초 한국인 수석부회장이 된 신학철 부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사진을 올렸다. 미네소타 지역 매체인 '파이어니어 프레스'는 "미네소타 지역에 예상 외로 많은 한국인이 살고 있다.

교민 2만여 명과 지역 유학생 600~700여 명이 미네소타 지역에 산다. 박병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